

400년만의 귀향

일본 속에 꽃 피운 심수관家 도예전

Nostalgia In 400 Years

The Shim, Su-Kwan Family's Ceramic Art

July 7 - August 10, 1998 Ilmin Museum of Art

1998.7.7-8.10 · 일민미술관



일민미술관
Ilmin Museum of Art

주최/일민미술관 동아일보사 후원/문화관광부 KBS 협찬/SK Telecom

관람시 유의사항

전시작품에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실내에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은 불가능 합니다.

음식물 반입과 애완동물은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깨끗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휴지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동반하신 분은 관람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관람시간

평일-토요일 10:00 -19:00 / 일요일 11:00 -17:00 / 전시기간중 무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일민미술관 (동아일보사옥)

전시안내 Tel (02)721-7772, Fax (02)734-7632 인터넷 주소 <http://www.ilmin.or.kr>

400년만의 귀향

일본 속에 꽃 피운 심수관家 도예전

1998년 7월 7일-8월 10일

일민미술관

Nostalgia In 400 Years

The Shim, Su-Kwan Family's Ceramic Art
July 7- August 10, 1998 Ilmin Museum of Art



주최 / 일민미술관 · 동아일보사

후원 / 문화관광부 · KBS

협찬 / SK Telecom

인터넷을 통해서도 심수관家 도예전이 소개됩니다.
<http://www.ilmin.or.kr>



일민미술관
Ilmin Museum of Art

심수관家 도예 400년

시대를 넘고 민족을 넘어서 돌아온 조선 도공의 예술혼



정유재란때 일본땅으로 끌려가는 조선 도공들의 모습

사쓰마야키,
조선에서 건너간 도자기 문화
심수관家는 임진왜란이 끝난
1598년, 일본 사쓰마 번주藩主인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에 의해
끌려간 조선 도공들 중
심당길의 후손으로, 도예의
불모지였던 사쓰마땅에 조선
도예를 전해주고 오늘날
사쓰마야키薩摩焼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를
가꾸어왔습니다.
사쓰마야키는 187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
대화병大花瓶이 출품되면서
'사쓰마웨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쓰마야키는 화산지대인
사쓰마지방의 백색 도토陶土로
만들어진 아이보리색의 시로사쓰마와
가고사마지방 특유의 흙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검은 빛깔의 구로사쓰마로
나뉩니다.
12대 심수관은 명치유신의
회오리속에서 사쓰마번의 관요를
인수하여 사쓰마야키의 중흥에
훈신의 힘을 다하였으며 심수관家를
사쓰마야키의 중가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심수관家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세계적인 명성뿐 아니라
심씨라는 우리 고유의 성姓을
400년 동안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선 도공의 예술혼과
한민족의 자긍심을 함께 보여주는
일이지에 더욱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각, 투각, 금채기법이
돋보이는 심수관家 도자기
심수관家 도자기가 가진 특징은
정교한 조각 기법, 고도의 투각기술과
화려한 금채기법을 사용하면서
혹·백색도자기를
조화롭게 제작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입니다.



1598년 남원성에서 불려간 조선 도공들이
일본땅에 뿌리내린 큐슈큐난 사쓰마 지방

망향의 비원이 서려있는 400년의 혼적

이번 전시회는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심수관家 400년의
도예전으로, 민요民謡로
전환하기 전까지 심수관家가
영주나 황실에 헌납하던 것 중
파손이나 상처가 난 것 혹은
예비로 남겨져 있던 것들을 포함하여
심수관家의 중흥기인 12대 때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처음 국내에
선보여지는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 민족을 넘어
이 도자기들은 400년전,
낮선 땅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일본 도자기의 꽃, 사쓰마야키를
발원시켰던 조선 도공들의
인내와 슬기, 망향의 그리움과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심수관家의 선조들이 그렇게도
그리던 고국의 땅으로 시대를
넘고, 민족을 넘어서 돌아온
도자기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근절된 정신과 조선 도공의
예술혼을 가슴 가득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400년에 걸친 심수관家의 작품을
보관하고있는 수관도원의 수장고



나에시에게로의 역대 조선 도공들이 묻힌 묘



조선 도공들이
400년전 가고시마현,
시마비라울루 해안에
처음 상륙한 것을
표시하는 기념비

Nosta

The Shim



부조운문 양이대화병
14대 심수관(沈壽官)

1970년,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 출품한
14대 심수관의 작품이다.
이 출품에 의해 심수관家는
3대 연속으로 만국박람회에
출품한 일본 유일의
가문이 되었다.
이 작품은 부조기법을
사용하여 피어오르는
구름을 표현하고 있다.

Algia In 400 Years

n, Su-Kwan Family's Ceramic Art

사쓰마(현 가고시마)의 한 작은 마을에 뿌리내린
사쓰마야키의 종가(宗家) 심수관家の 도예

사쓰마는 조선 도공들이 건너가 이룩한 도요지 중의 하나로,
사쓰마야키는 심수관家를 비롯한 조선 도공들이 도예촌을
형성하여 400년 동안 이어온 도자기의 이름이다.
심수관家 도예기술의 특징은 정밀한 채색화기법과
상아를 깎은듯한 조각기법,
정교한 투각透刻 기술을
들 수 있다.



히바차리 다완
(불(火)만 발린 그릇)
初代 심당길(沈當吉)

흙도 유약도, 이것을 구워낸 도공도 모두 조선에서
건너온 것이고, 불(火)만을 일본의 것을 사용했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조선시대의 사발沙鉢을 연상케 하는
소박함과 강인함이 담겨있다.



사자승 관세음보살좌상
8대 심당원(沈當圓)

文政시대(1818-1829)의 작품이라고
전해진다. 관음의 풍부한 표정과
자애慈愛넘치는 모습,
유모르스한 사자의 얼굴이
적절하게 어울려 있어 작품의
조형성을 돋보이게 한다.

사군자문 투각향로
12대 심수관(沈壽官)

12대의 각물角物중 하나로
스스로가 개발한 기술인
투각透刻기법으로 만든 뚜껑을
썩은 것으로, 칠보연결에서
망듬새에 이르기까지 유연하게
넘어가는 정교한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어진흑유 사자면화병
12대 심수관(沈壽官)

어진흑御前黒이란
흰색도기가 대우받던
에도江戸시대에
어전御前に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흑색도기라는 의미로
이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이 화병은 흑유에
금분金粉을 섞어서
꾸러놓은 듯한 표면이
돋보이며 귀족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14대 심수관

1926년 13대 심수관의 독자로 태어나
1964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14대 심수관으로
답습계명하여 현재까지 사쓰마야키의 대를
이어 수관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전시회를 비롯하여 <일본의 도자가
사쓰마야키> 등을 저술한 바 있다

14대 심수관의 작업하는 모습



일본 무사풍의 가옥으로 400년의 세월을 호칭하며
사쓰마야키의 맥을 잇고있는 수관도원의 전경

沈
壽
官

특별행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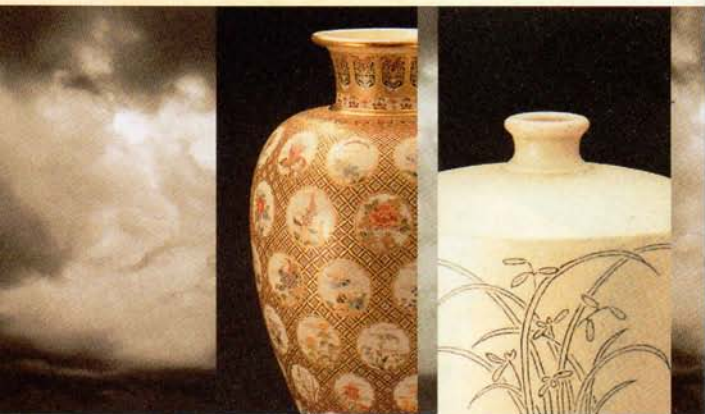
심수관 사인회 전시도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미술관 1층 로비에서
14대 심수관씨가 직접 붓글씨로 서명하여 증정하는
사인행사가 마련됩니다.
7월 10일(금), 오후 2시~4시까지

특별강연회 매주 수요일 심수관家 도예에 관한 저명인사들의
특별강연회가 마련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비디오 상영실(미술관 2층, 제3갤러리)

7월 8일: 한수산(작가) 내가 본 심수관
7월 15일: 홍종필(명지대교수) 일본에 끌려간 조선도공 수난사
7월 22일: 윤용이(원광대 교수) 심수관 도자기 미학과
한국 미술사에서의 위치
7월 29일: 윤덕민(외교안보원 교수) 도자기로 본 한·일 흥망사
8월 5일: 김장용(중앙대 교수) 심수관 도자기의 미학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작품설명회 전시기간중 1일 2회(11시, 2시) 전시작품설명회가 있습니다.

비디오 상영 일민미술관 2층 비디오 상영실에서는 전시기간중
심수관 도예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20분 분량의
비디오가 연속상영됩니다.



관람안내

관람권 일반및 대학생/ 3,000원
초 중 고등학생/ 2,000원 (학생 단체 20인 이상 /1,500원)

관람시간 월~토요일 · 오전 10:00~오후 7:00
일요일 · 오전 11:00~오후 5:00 (전시기간중 무휴)

주차장 신축건물 공사중인 관계로 인근주차장 (세종로주차장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교통편 버스-광화문 교보빌딩앞 하차
(도보로 3분 소요)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하차
(도보로 5분 소요)

일민미술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동아일보 광화문사옥)
전화 / 721-7772, 7776 팩스 / 734-7632

